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o APEC 제3차 보건실무그룹회의 및 보건경제 고위급회의

□ 과제명

o [수탁23-023-00] 2023 글로벌 보건복지 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 대응방안 마련

□ 출장기간

o 2023.8.2.(수)~2023.8.8.(화)/5박7일

□ 출장국가(도시)

o 미국(시애틀)

□ 출장자

o 국제협력단 박수빈 연구원

*대한민국 대표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이호열 국제협력관 국장,
한상균 국제협력담당관 과장, 위지원 사무관, 조민정 사무관 외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08.02	미국(시애틀)	-	-	출국 및 현지 도착
08.03	미국(시애틀)	시애틀컨벤션센터 (APEC 회의장)	APEC 회원국 및 보건실무그룹 (HWG)사무국	APEC HWG 1일차 회의 참여 - 회의 안건: 23년도 HWG 회의록, 디지털 헬스 정책, 제13차 보건경제 고위급회의 공동선언문 초안 등 논의
08.04	미국(시애틀)	시애틀컨벤션센터 (APEC 회의장)	APEC 회원국 및 보건실무그룹 (HWG)사무국	APEC HWG 2일차 회의 참여 - 회의 안건: 원헬스 및 경제, 기후변화와 건강, HWG 프로젝트 업데이트, 2024년도 의장국(페루)의 보건 우선분야, 젠더와 보건의료 정책의 형평성 등 논의
08.05	미국(시애틀)	시애틀컨벤션센터 (APEC 회의장)	APEC 회원국 및 보건실무그룹 (HWG)사무국	APEC HWG 3일차 회의 참여 - 회의 안건: 젠더와 보건의료 형평성, 여성 참여 확대, 민관협력 사항, 여성 건강 돌봄 및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의 모범사례 등 논의
08.06	미국(시애틀)	시애틀컨벤션센터 (APEC 회의장)	APEC 회원국 및 초청 기관	APEC 보건·경제 고위급회의 참여 - 회의 안건: 지속가능한 보건 재정, 보건시스템 강화, 공동선언문 채택 등
08.07-08	미국(시애틀)	-	-	현지 출국 및 귀국

2 출장 주요내용

①	출국 및 현지 도착
일 시	8/2(수) 9:00-18:00
장 소	인천국제공항/ 미국 시애틀 타코마 공항
o KE0041 16:40 - 10:60 인천→시애틀	
②	APEC 보건실무그룹회의 1일차
일 시	8/3(목) 9:00-18:00
장 소	시애틀 컨벤션 센터 (APEC 회의장)
참석자	APEC 보건실무그룹회의 사무국 및 APEC 회원국

1. 개회사 및 아젠다 채택

□ 의장 환영사 및 본 회의의 아젠다 채택

○ 개최국(미국) 및 의장(태국)의 환영사 및 23년도 의장국 우선 사항 소개

- Interconnected(상호연계): 팬데믹 예방과 팬데믹 이후의 회복탄력성 강조
- Innovative(혁신): 경제와 보건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디지털 혁신
- Inclusive(포용): 형평성을 중시하며 여성 및 소외계층의 참여 독려

2. 제1차 HWG 회의 리뷰

□ 제1차 보건실무그룹회의 결과 요약본 채택

○ 팬데믹 예방·대비·대응(PPR)을 위한 회복탄력성, 디지털 도구의 보건 분야 활용 확대 및 강화, 정신 건강 및 원헬스 등의 안건 포함

○ 정신 건강, 디지털 헬스, 백신 접종을 위한 HWG의 하위 작업반들의 연말 보고에 대해 언급함

3. HWG 프로젝트 요약 (세션3)

□ AMR(항생제 내성) 워크숍 (미국)

○ APEC 회원국의 AMR 격차 분석을 통한 신약 개발 및 의약품 시장 진입 장벽 해결에 관한 워크숍 진행

○ 총 2일(7월 31일, 8월 1일) 동안 8개 회원국에서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관련한 보고 자료는 올해 가을에 공유 예정

□ 원격의료 정책 대화 (미국)

○ 약 35명이 참여한 정책 대화는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일본, 미국 등의 APEC 회원국 및 학계 관계자들과의 정책적 논의를 통해 진행됨

- 초청 강연, 회원국 사례발표 및 국별 토의를 통해 원격의료의 상호운용성, 디지털 헬스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 분야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방법, 원격의료의 규제 샌드백스에 대한 개요, 포용적이고 접근성이 강화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 진행

□ 아·태지역 회복력 있는 의료공급망 (미국)

○ 의약품 회사, 학계 그리고 보건의료 공급자 등과 논의 진행

○ 논의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팬데믹의 교훈을 통해 의약품 공급망 강화 및 자국의 설문조사의 결과 등을 공유하였으며, 관련 보고 자료는 가을에 공유 예정

□ APEC VTF (백신 태스크포스) (IFPMA, 국제제약협회연맹)

○ 생애주기 예방접종(LCI)의 상당한 국별 격차가 존재

○ 예방접종의 가치에 대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확대 및 실행의 필요성을 확인

○ 예방접종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함을 논의함

- HHS(미 보건복지부), WHO, APEC VTF, IFPMA 등의 기관 및 미국, 호주, 한국 등의 APEC 회원국에서 생애주기 예방접종의 중요성 및 필요성,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식 공유와 협력을 장려하여 백신 접종률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함

□ 백신 스포트라이트 보고서 (캐나다)

○ 백신 주저 (vaccine hesitancy)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이 채택한 전략과 도전과제 및 교훈을 논의하기 위해 APEC 회원국에 설문을 진행함

○ 백신에 대한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complacency), 편리함(convenience)에 대한 응답한 회원국들에 대해 공유하며 공통된 백신 주저 해결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논의함

- 증거 기반의 정보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호주, 필리핀, 미국)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 대응 전략 (말레이시아, 필리핀)
- 상황의 복잡성에 따른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조정 전략 (캐나다, 호주, 홍콩)
  - (시사점)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의 중요성, 다양한 인구/인종의 복잡한 수요에 대한 이해, 정부와 대중 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함
  - (제한점) 시간적, 범위, 역량(조직적 및 인적 자원의 부족),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제한 등이 존재함

○ 8월 30일까지 회원국들의 설문 응답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며, 최종 보고서는 APEC HWG에 공개될 예정임을 보고함

□ 회복력 있는 공중보건 체제 역량 개발을 통한 코로나 19로부터의 경제회복 워크숍 (중국)

○ (배경)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아태지역의 GDP는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은 보건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침

○ (목적) 보건 및 R&D 제조 역량, 제품 공급 및 유통 인프라, 지식 및 기술 이전을 위한 기술적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 및 토의하고자 함

- 근본적인 전략, 방법론, 수당, 정책 방향에 대한 변화와 혁신적 사고 촉진
- 회원국들의 보건 혁신 정책과 관행에 대한 경험 공유 플랫폼 구축
- 회복력 있는 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해 다자간 협력 가속

○ (일정) 23년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중국(북경)에서 개최 및 진행 예정

□ 호흡기 감염병 관리를 위한 APEC 역량 개발 포럼 (중국)

○ 23년도 6월 29일과 30일에 중국에서 진행된 호흡기 감염병 관리를 위한 APEC 역량 개발 포럼은 미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 등의 APEC 회원국들이 참여함

○ 푸트르자야 비전 2040과 관련한 본 포럼은 APEC 회원국들의 사례 공유와 각국의 보건분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둠

- 중-일 지역병원의 자매결연 사례(China-Japan Friendship Hospital; CJFH)인 윈난 성, 장쑤 성, 그리고 헤이롱장 성의 보건분야 협력사례를 공유함

□ APEC Smart Families (태국)

○ (배경 및 목적) 출산율 하락과 높은 비율의 의도치 않은 임신(Unintended Pregnancy)이라는 상반된 문제의 해결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로, 세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국별 동향 파악, 출산과 가족을 위한 정책 경험을 공유, 그리고 정책 옵션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함

- 화상회의로 진행된 세 차례의 워크숍에 약 13개의 회원국이 참여(한국 포함)함
- 세 차례의 워크숍은 제1페이즈로, 결과 보고서로 "인구 회복탄력성을 위한 정책 옵션" 보고서가 승인 검토 중임
- 제2페이즈에서는 권고 및 제안된 정책 옵션들을 채택하기 위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학인코자 함

4. 제13차 APEC 보건 경제 고위급회의 공동성명 *

*8월 3일과 4일, 양일간 논의

□ 세 번째 문단(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내용의 회원국(러시아) 반대로 채택되지 않음

□ 네 번째 문단(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은 본 실무그룹에서 논의되는게 부적합하다는 회원국(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었음

○ '22년도의 정상회의 선언문(Leaders' Declaration)에 기재 되었다는 미국 측 주장(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 지지)에 따라 채택됨

□ 다섯 번째 문단(WHO 등 국제기구의 보건시스템 역량 강화 동향에 주목)에 관한 내용은 회원국(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었으나, 단어 삭제 및 표기 수정을 통해 채택됨

○ 반대 의견(러시아, 중국): APEC에서 WHO에 대한 내용을 논의 및 언급하기에 부적절함을 주장

○ 지지 의견(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다른 다자회의체 논의 사항이 APEC 보건실무그룹회의의 주요 관심사랑 유사하므로 "인지(recognize)"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코자 함

□ 열 번째 문단(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리, SRHR[1])에 관한 내용은 회원국(러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음

○ (러시아)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로 수정할 것을 제안(권리 제한)

○ 아시아 국가들은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로 수정할 것을 제안(권리 제한)

□ 열여섯 번째 문단(돌봄 노동자)에 관한 내용은 회원국(러시아와 중국)의 반대가 있었으나, 단어 삭제 및 표기 수정을 통해 채택됨

○ (러시아) “gender-based violence” 및 “women & girls” 등의 특정 성에 대한 언급에 우려가 있어 표기 수정 제안

○ (중국) “care workforce”에서 더 포괄적인 단어(개인 돌봄 노동자까지 포용하는) “care providers”로 표기 수정 제안

5. 디지털 헬스 정책: 상호운용성 및 사이버 보안

□ 디지털헬스 작업반(Digital Health Sub-Working Group, DHSWG) (대만)

○ DHSWG의 소개

- 2020년도부터 HWG에 디지털 헬스 아젠다가 포함되어 작업반을 만들었으며, ‘23년도에 가입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페루, 필리핀, 태국, 베트남, 그리고 대만이 본 작업반에서 정책 대화를 나누며 디지털헬스 활용을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

○ 코로나19 이후 APEC 회원국의 “건강 형평성을 위한 원격의료 활용”에 대한 연구

- (목적)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한 원격의료 활용 사례를 수집 및 분석, 디지털 헬스 분야의 거버넌스 이해 증진
- (방법) 11개의 회원국(한국, 호주,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의 사례 분석 및 12개의 회원국(+일본)의 설문 응답지 기반 분석
-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원격의료 활용이 주로 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활성화되었으며, APEC 회원국들은 원격의료,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후 EMR) 교환, 사이버 보안 등의 디지털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국가의료 데이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정책을 수립한 바 있음
- (제언) 코로나19로 촉진된 원격의료 활용의 모멘텀을 살려 디지털 헬스 기술을 발전시켜 건강 형평성을 제고, 디지털 헬스에 대한 APEC HWG 내 논의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촉진, 아태지역의 보건데이터 표준과 상호운용성에 대한 논의와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언

○ ‘23년도 하반기 계획

- ’23년도 11월 15일~16일 양일간 대만에서 디지털 헬스 정책 대화의 장을 마련
  - 15일: 상호운용성의 모범사례를 주제로 대만, 미국, 그리고 한국의 사례 공유 및 논의
  - 16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의 모범사례 및 디지털 헬스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대만 및 디지털 헬스작업반 참여국과의 정책 토의

□ APEC의 디지털 헬스 정책 (미국, HHS/ONC)

○ 디지털 헬스의 네 가지 키워드는 표준화(standard), 인증제(certifications), 교환/교류(exchange), 그리고 조정(coordinating)으로, 각각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공유함

-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건강정보에 대한 인증제의 표준화 작업
- 건강정보 연계 및 교환에 대한 정책 노력 (High Tech Act, 2009)
- 사이버보안 및 건강 돌봄 분야의 연계 및 교육에 대한 노력이 추가로 필요함을 제언

□ 디지털 헬스: 상호운용성 및 사이버 보안(대만)

○ (대만의 건강정보 상호운용성) 1980년대부터 건강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가 건강보험 분야에서 진행되어 2000년대에 이후로 클라우드시스템 도입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정책 논의 진행

- 2022년도부터 병원 및 임상적 의료기관, 시스템적 통합,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EMR 규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이뤄짐
- 코로나19 이후 국제적 표준화 작업(예: EUDCC) 및 디지털 웨어러블 건강 정보(예: 애플사의 건강 앱)의 활용으로 디지털 건강정보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노력 강화
-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위한 거버넌스, 다양한 정보 수준(level)간의 표준화,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논의 및 노력의 필요성 강조

○ (대만의 건강정보 사이버 보안)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및 임상 의료기관, 나아가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health vendor) 전반에 걸친 사이버 보안의 규제 발전 (하드웨어->정보 시스템 통합적 도메인->전달체계) 소개

- 사이버 보안의 강화를 위해 규제 및 협력과 공유가 중요함을 강조

□ 국별 토의

○ 전반적으로 각국의 디지털 헬스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회원국들의 교류 및 협력이 중요함을 제언함

○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칠레, 인도네시아) 각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 강력한 정책적 노력을 공유함

- 강력한 인증제, 사고 대응 관리 절차, 데이터 복구를 위한 데이터 및 시스템 백업, 정보 잠김 현상 방지, 의료 정보시스템에 보안 패치 적용, 법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데이터 공유를 위한 투자, 국가적 디지털 헬스 전략 도입 등의 정책적 노력 공유

○ (러시아) 환자 중심적 보건의료 시스템의 생태 및 활용 가능 자원 확인을 기반으로 수요에 충족하도록 지원

○ (필리핀) UHC(보편적 건강 보장) Act라는 법 제정을 통해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헬스 방안 마련

○ (한국)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체계 개발의 한계를 넘기 위해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하여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 및 이원화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통합한 의료정보보호센터(Healthcare Information Security Center)의 정책 경험 및 노력 공유

6.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코로나19 및 정보 장애

□ (APEC의 정보 장애) 코로나19를 겪으며 APEC 회원국들은 정보 장애로 인한 신뢰와 질적 성장이 저해되며, 경제적 비용 증가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및 정책적 협력이 필요함을 제언

○ 푸트르자야 비전 2040(무역과 투자, 디지털화와 혁신, 그리고 안전한, 균형잡힌, 지속가능한, 그리고 포용적인 성장을 도모하므로)을 기반으로 아태지역의 정보 장애를 함께 극복하여 성장코자 노력할 것을 강조함

○ 정보 장애는 위해성의 의도와 무관하며, 허위 또는 유해한 정보를 생성 및 유포하는 행위며, 유형은 다음과 같음

[표 1] 정보 장애 유형

		의도적 위해성 (intend to harm)	
		유	무
사실 여부 (veracity)	참	mal-information (악성 정보) - 해킹 등	Fact (사실)
	거짓	disinformation (악성 허위정보) - 가스라이팅, 가짜 뉴스 등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 - 패러디 등

○ 정보 장애는 언론 매체 및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이는 질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성장이 저해됨

- '21년도의 APEC 설문조사에 따르며 80%가 넘는 응답자가 가짜 뉴스 및 허위정보의 유포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약 60%의 응답자가 온라인상의 정보를 신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표함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는 정보 장애로 인해 백신 접종 및 유통 등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증가함

- 백신 주저(vaccine hesitancy)는 이전에도 미국에서 논의된 문제 중 하나였으나 코로나19에서 지역적으로 주저 현상을 확인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 장애를 이해하고, 범정부적 정보 장애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아태지역 및 정책적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7. 디지털 헬스: 정신 건강과 건강한 노화

□ APEC 정신 건강 디지털 허브 활동 및 향후 계획 (캐나다)

○ (목표) 국제 모범사례들과 같은 선상에서 각국의 수요에 맞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정신 건강 강화

- 2021-2030 로드맵은 아태지역의 건강과 경제적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됨을 바탕으로 작성됨
- 목표는 원칙 기반의 접근 방식(다양성 및 포용성, 강점 기반 접근법, 지속적인 교육 및 참여 유도) 및 최대 효과를 위한 이니셔티브(특히, 디지털 기술 및 공평하고 포용적인 성장) 확장
  - 청년 정신 건강, 통합적 일차 의료, 직장 내 웰니스 개선, 데이터 메트릭스 강화, 재난/재해 복원력 강화 등의 우선 사항 확인

○ Digital Hub for Mental Health에서 온라인 포럼 기획(9월 28일~29일)

- (목표) 팬데믹 이후 정신 건강을 위한 APEC 역내 디지털 허브 네트워크 활성화, 2021-2030 로드맵 목표와 관련된 모범사례 공유 및 학습, 정신 건강 형평성 증진, 디지털 헬스,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한 역내 모범사례 공유 및 혁신 강조

□ 노령 인구를 위한 디지털 치료 (미국, SAMHSA[2])

○ 미국에서의 노령 인구 정신 건강은 중요한 문제로, 원격의료와 디지털 치료(DTx)를 통해 SAMHSA가 노령 인구를 위한 디지털 치료를 지원함

- 디지털 헬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증거 기반의 실무지원 센터 (Evidence-Based Practice Resource Center, 2018)를 설립하여 지역 및 임상 실천 현장을 지원
- 행동 건강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법 지원

○ 디지털 치료(DTx)는 치료 접근성, 참여도 및 건강 결과를 개선하는 동시에 치료비용을 절감, 치료가 어려운 질환과 고령자 등 치료의 접근성이 어려운 인구의 행동 건강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

- 디지털 치료 처방 (Prescription Digital Therapeutics, PDTs)는 3R(Research and Development, Review and Regulations, Reimbursement)으로 연구개발, 심사 및 규정, 환급(민간 부문 포함) 등의 진입 장벽이 존재

○ (제언) DTx는 정신 건강 상태 및 약물 남용의 관리와 치료에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비용, 환급문제, 연구기반이 부족한 다른 디지털 헬스 제품과의 경쟁 등의 진입 장벽을 직면하고 있음

- 그러나, 행동 건강 및 웰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앱의 양적 증가를 확인하였으나, 모두 증거 기반은 아님
- 근거기반의 개인정보보호 및 건강 데이터 보호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아태지역 건강한 노화를 위한 디지털 헬스 기술 (Global Coalition on Aging, GCOA- 노화 세계연합)

○ GCOA는 고령화를 다방면으로 다루며 협력 및 행동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다부문간의 연합체로, 건강한 노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에의 투자 중요성을 강조

- 디지털 헬스 기술혁신은 건강한 노화, 기능적 능력 및 삶의 질 향상, 생산성 향상,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여 건강한 노화를 위한 격차를 줄일 수 있음
  - 노년층의 기술 활용(예를 들어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 미디어 사용 노인 인구수 증가)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건강한 노화를 위한 기술혁신도 증가함
  - 중국, 프랑스, 태국, 칠레, 미국 등의 역내외의 국가들과 협업함
- GCOA는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ITU[3], UN 등)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2023년도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 사회 세계 정상회의)를 이끌며 건강한 노화와 디지털 기술혁신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함
  - 오는 12월, 뉴욕시(미국)에서 진행 예정인 고령화된 경제에 관한 고위급회의(High-level Forum on the Silver Economy)를 홍보

□ 국별 토의

○ 대부분의 회원국은 디지털 헬스 기술의 혁신이 건강한 노화 촉진에 중요함을 지지하였으며, 국별 우선 사항을 공유함

○ (일본) 고령 인구의 인공지능 및 스마트폰 활용 사례 및 어려움 등에 대해 공유

○ (중국) 디지털 기술 적용이 중요함에 공감하며, 디지털화된 고령 인구의 건강 관리 (예시: 앱을 통한 고령인구 혈압 관리 등) 활용 사례 공유

○ (말레이시아) 디지털 혁신을 통한 고령 집단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정확한 건강정보 제공을 우선 사항으로 두고 있음을 공유

○ (한국) 정신 건강의 연구개발, 임상, 실무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정신 건강 관련 디지털 혁신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반적인 보건분야의 디지털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생 가능한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ICT 기기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함을 공유

③	APEC 보건실무그룹회의 2일차
일 시	8/4(금) 9:00-18:00
장 소	시애틀 컨벤션 센터 (APEC 회의장)
참석자	APEC 보건실무그룹회의 사무국 및 APEC 회원국

1. 원헬스와 경제

□ 원헬스 접근법 (미국)

○ 원헬스라는 통합적인 관wja을 기반으로 인간, 동물, 그리고 환경 건강의 균형과 최적화를 증진코자 하며, 이를 위해 포괄적인 보건분야 및 다학제적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

○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의 프레임워크(5개년 전략)를 통해 원헬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함

- 바이든 정부는 특히 인수공통감염병의 학산의 생물학적 대응 역량(항생제 내성 및 암을 포함) 강화, 환경적 정의, 기후변화와 건강 등을 강조

  • 기후 변화가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함

  • 환경 정의에 관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은 공평한 환경 정책을 위한 조정, 데이터 분석, 연구의 중요성 등을 강조

○ 이와 같은 원헬스 접근 기반의 노력에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고, 각국의 정책 경험 및 노력을 공유할 것을 장려함

□ 국별 토의

○ 전반적으로 참여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 캐나다, 한국, 칠레, 대만, 필리핀)들은 동·식물과 인간을 포괄하는 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원헬스 접근법 기반으로 다분야간 협력과 다학제적 접근방식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함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표함

- (국별 정책 노력 공유) 시의적절한 범정부적 대응과 함께 적절한 예산 할당이 중요하며, 전체론적이고 통합적인 원헬스 관련(항생제 내성 및 암 등 포함) 해결방안 모색 및 법령 제정의 노력 등을 공유함

  • (한국) 항생제 내성, 인수공통감염병, 식품 매개감염병 등에서 원헬스 접근법이 활용되며, 범부처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을 공유함. 다양한 공중보건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아태지역 내의 공동 대응 협력 방안 모색 및 대응체계 강화에 협력할 것을 표함

- (국제적·지역적 협력) 아태지역 내의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정보공유, 역량 강화, 연계된 공동 대응 프로토콜 등 지역적·국제적 원헬스 접근법 강화 및 원헬스 기반의 공동대응체계 강화에 대해 논의하며, 그 외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기구 및 협의체 또한 언급됨

  • (러시아) 원헬스 4자 협력 기구(Quadripartite One Health Initiative)[4]와 OHJPA(One Health Joint Plan of Action)

  •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 ASEAN과 같은 지역 협의체

  • (인도네시아) G20 및 G20 재무·보건 태스크포스

2. 기후 변화와 건강

□ 기후 변화와 건강 (미국, 워싱턴대 글로벌 보건환경센터)

○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때 다음의 네 가지 주요 우선 사항을 강조함

-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 인간 및 자연의 생태계 시스템, 잠재적 취약성, 날씨 변화에 대한 민감성 및 수용성

○ IPCC 2022의 인류 건강 챕터에서 관찰된 주요 영향과 예상 위험 등을 보고함

- 관찰된 영향: 벡터매개 질병[5]의 범위 확장 및 증가, 신종 인수공통전염병 발병. 콜레라를 포함한 위장관 감염, 수인성 및 식품 매개 질병
- 예상 위험: 식품 매개 및 수인성 매개 질병은 온난화 수준에 적응 및 증가할 것으로 예상, 뎅기열 위험도가 높은 계절이 길어지며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 별 영향)

- (폭염) 사회적 취약계층(아동 및 노인)은 폭염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적으로 열 관련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벡터매개 질병) 기후, 벡터(매개), 그리고 바이러스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뎅기열 생태학에 생물물리학적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침
- (탄소배출) 탄소 배출은 농업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영양의 불균형("Hidden Hunger")을 초래함
- 전반적으로 위험도, 취약성, 노출의 복합적 작용으로 감염병의 연쇄적 위험성이 증가

○ (효과적 해결방안 제언)

- 보건시스템의 회복력 강화, 고위험군 계층이 기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기 경보 및 대응 시스템을 포괄하는 폭염 행동 계획(Heat Action Plan), 식수 접근성 개선 (홍수 및 악천후 시), 기후 변화로 인한 정신 건강 및 사회심리학적 영향 모니터링 등을 제언

○ 2021년도 기준 (란셋보고서 및 WHO 설문) 95개국 중 약 50개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 전략 계획을 갖춘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 및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미국, OASH-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

○ 기후변화는 환경적 변화(극심한 기온 및 기후의 변동, 해수면 상승 등)로 이어지며, 이는 인간의 정신 건강과 직간접적인 신체적 건강으로 이어짐

- 예시로, 대기오염은 알러지와 천식등의 순환기 및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지며,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가뭄 및 홍수에 의한 수질 영향, 산불 및 연기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 생활 환경 악화 및 사회적 불평등, 생태계 및 식품/식수에의 영향 등은 생활 및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침

○ 미국은 2021년도 기준 폭염, 홍수, 태풍, 폭우, 산불 등의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1980년도에 비해 약 7배 증가(자연재해 횟수 및 비용)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보건부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존의 건강 위협이 악화되고 새로운 공중보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의 웰빙과 복지를 위해 범부처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함에 따라 OCCHE[6] (미국 보건부 하의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사무국)을 설립함

○ 또한, 미국 보건 부문의 기후 서약(2022년도)에서 2030년까지의 탄소 배출량 감축, 2023년 말까지 기후변화 관련 불평등 피해를 예측하여 지속적인 기후 복원력 계획 개발 등을 목표로 함을 확인

□ 국별 토의

○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와 건강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 공감하였으며, 이에 관한 앞으로의 역내 협력(탄소 배출, 증거 기반의 연구 등)이 필요함을 확인함

○ 대체로 지속가능한 기후 탄력적 보건 시스템 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한국)

- 아시아 국가(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들은 기후변화와 연관된 보건 역량 강화의 국별 프레임워크 구축에 있어서 APEC과 WHO의 중요한 역할(지지 및 촉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뉴질랜드 또한 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의 실천 계획을 APEC에서 향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함을 표함
- 한·중·일은 탄소 배출과 관련된 노력을 강조

○ (한국)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과 더불어, 민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기반의 정책 개발 및 수립 노력을 공유함

3. APEC 2024 주최국(페루)의 보건분야 우선순위

□ 페루의 보건분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 정신건강 지원 강화

○ 다문화 및 성평등 이니셔티브 장려

○ 일차의료를 통한 보건시스템 강화

○ 예방접종 노력 강화

○ 기후 적응 및 복원력 대책 강화

○ 보건 위기 상황 대비 및 대응 역량 강화

□ 국별 토의

○ 회원국들(한국, 미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페루의 보건분야 우선순위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으며, 각국은 특히 우선순위 중 각국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아젠다를 더욱 지지함

- (한·중·일) 회복 탄력적인 보건 시스템 구축을 강조
- (미국) 정신 건강, 다문화 및 성평등, 그리고 기후변화와 디지털화 강조
- (중국) 일차 의료 혁신, 미래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 디지털 헬스의 효율성 및 탄력성 개선 강조
- (태국) 원헬스 기반의 보건 시스템 강화에 대한 부분 또한 중요하게 다룰 것을 제언
- (인도네시아) R&D 및 지식 공유, 민관협력 등을 추가로 다룰 것을 제언

○ 한국은 페루의 우선순위가 한국의 우선순위와도 유사하며, 페루 다음의 의장국(2025년도)으로써 페루가 발표한 우선 사항들을 지지함

4. '24 & '25 HWG 의장단 선출 및 임명

□ 페루에서 의장을 맡을 예정이며, 페루 내부적으로 의장직 확정 후 임명 예정

□ 부의장 선출에 대한 안내

○ 부의장을 희망하는 국가의 회신 요청

○ 부의장 재임 기간 (~'24년 까지 1년, 혹은 ~'25년까지 2년) 협의 가능

5. 젠더 및 건강 형평성 정책 대화

○ (소개 및 개요) 2011년도에 APEC은 경제성장에 여성의 기여를 강조하는 전략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과 경제에 관한 정책 파트너십"을 출범하였으며, 이는 '건강한 여성, 건강한 경제' 이니셔티브는 건강과 젠더의 교차적(intersectional) 접근 방법의 기반이 됨

- 여성 건강과 노동 시장 참여의 연관성을 인지하며, 이는 APEC의 여성 및 포용적 성장 로드맵에 포함된 원칙
- 바이든 정부는 성평등과 형평성을 우선시하며, 젠더 기반의 폭력, 재생산 건강, 모자보건 및 사망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코로나19 팬데믹은 건강 형평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여성에게 불균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시킴
  - 이에 미국 정부는 성차별 해소, 돌봄 인프라 투자, 기회 및 교육의 평등한 진입 장벽을 통한 공평한 경제 구축을 강조
- 성평등과 건강 형평성은 SDG(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일환이므로 젠더 및 건강 형평성의 정책 대화의 중요성 강조

○ 건강 형평성 및 건강 우선순위 (미국,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 글로벌 질병 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GBD) 연구(전 세계적인 건강 손실의 규모를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건강 형평성 및 우선순위를 확인
  - 젠더 기반의 건강 격차를 확인했을 때 몇몇 질병(우울증, 불안증, 두통 등)은 여성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반면, 몇몇 질병(폐 및 심장 질환, 코로나19 등)은 남성에게 영향을 많이 미침
  - 또한, APEC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흡연자의 비율은 남성이 높았으며, 비만 지수(BMI)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복원력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부 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 의료서비스 접근성 관련 문제, 낮은 백신 신뢰도(confidence), 경기 침체 및 식량 안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여성의 암과 건강 형평성 (WHO)

- 세계적으로 암은 건강 형평성의 대표적 예시로, 비감염성질환(NCD)는 전 세계적인 사망 원인의 74%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2019년도 기준)
  - 노르웨이(약 9%)와 코트디부아르(약 29%)의 유방암 유병률을 비교했을 때 주요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 가능성에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함을 확인함
  - 유럽과 북미에서의 암 환자 생존률은 90% 이상이나, 인도에서는 약 60%,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는 약 40%에 못 미침
- WHO는 국가별 암 치료를 위한 투자 사례관리 및 정부의 개입 우선순위로 암(비감염성질환)을 권고

- WHO 암 이니셔티브를 통해 여성 암(자궁경부암, 유방암, 아동기 암)에 초점을 맞춤
  - WHO는 국제적으로 2030년까지 생애 주기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여성의 암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
  - 2023년도에 국제 암 연구기관(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는 5대륙의 암 발병률 및 이환률 등의 데이터를 포함함
- 여성 암 부담을 세계적으로 모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며(세대에 걸쳐 사회경제적 부담과 웰빙 위협), 이를 해소하고자 WHO 는 여성과 아동 암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이니셔티브를 실행(75개 이상의 WHO 회원국 활동)
  - 암과 건강 형평성을 위해 불평등 해결을 위한 연구와 혁신, 그리고 영향력의 측정이 중요함

□ 패널 토의

○ (캐나다) 여성의 건강 형평성을 위해 자궁경부암과 장기 요양 돌봄 등의 분야에 주목하며, 특히 캐나다에서는 우선적으로 위해 토착민(indigenous), 이민자, 그리고 도서·산간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구의 건강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함을 강조

- 캐나다 인구의 정체성 인식이 개방적이며, 이러한 다양성이 임상 시험에서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로 활용되어야 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 (중국)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해 정신 건강과 웰빙, 균형 잡힌 식단(영양실조 및 비만 예방) 등의 공공 서비스 및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고 있으며, 질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3단계 접근법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 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줄이며, 사회 및 경제 발전에의 여성 참여를 독려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발표함

- 질병 예방 및 통제 3단계는 첫째로 가정의 역할(다양한 질병 예방에 중점) 강화, 둘째로 조기 발견 및 회복을 위한 검진(자궁경부암과 같은 여성 질병 발생률 감소) 시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 진단·치료·회복을 위한 서비스 강화로 구성됨.

○ (태국) 태국의 암 진단 과정과 성별 암 발병률에 대한 자료를 공유함

- 남성은 간암과 폐암의 발병률이 높고 여성은 유방암과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음

④	APEC 보건실무그룹회의 3일차
일 시	8/5(토) 9:00-18:00 (※ 사전 대체신청으로 근무일로 인정받은 휴일근무)
장 소	시애틀 컨벤션 센터 (APEC 회의장)
참석자	APEC 보건실무그룹회의 사무국 및 APEC 회원국

1. 젠더 및 건강 형평성 정책 대화 리뷰

□ 젠더 및 건강 형평성 정책 대화 리뷰 (2일 차에 이어서)

○ 패널들은 전체적으로 여성 건강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과 의사결정 추진을 위해 증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중요함

○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 및 여성이 직면한 고유 건강 문제(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 해결을 위한 개입의 중요성에 공감함

2. 예방, 선별 및 치료를 통한 여성의 경제 참여 강화 및 패널 토의 (세션 3 & 4)

□ 감염병 예방, 임상 및 치료를 통한 여성의 경제 참여 강화 (미국)

○ 감염병은 엔데믹, 에피데믹, 팬데믹의 수준(scale)에 무관하게 근본적이고 잠재적인 불평등을 증폭

○ 감염병 창궐은 여성의 생물학적 배경 및 여성이 수행하는 역할(돌봄 제공자)로 불평등이 심화됨

-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X 염색체가 많은데, 이는 면역체계와 전반적 상태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면역학적으로 더 강함(백신 반응이 더 좋음)
- 돌봄 제공자로 감염병 및 매개 질병의 노출 위험이 높기 때문에 건강 격차 발생

○ 이러한 차이를 식별, 측정 및 모니터링하는 데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개선하고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로 바꿀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함

-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HPV 백신 접종이 15% 이상 감소했는데, 이는 여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학교 기반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적 개입(백신 접종률 회복)이 이뤄져야 함을 확인 및 시행해야 함
- 또한, 뎅기열의 경우 일반적인 사례에 포함되지 않으나 월경 중인 여성에게 더욱 위험도가 높아짐(심각한 무기질증과 질 출혈 유발)을 확인함

○ 성별 및 성별에 따른 감염병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

- 감염병 감시 및 보건의료 데이터에 세분화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생물학적 및 성별 결정 요인(연령, 성별, 인종, 직업, 임신 여부) 등이 포함될 것
- HPV 백신 접종 및 제거 노력을 가속화하고, 여아 및 성인 여성을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포함할 것
- 여아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위험을 예측 및 해결하기 위해 생물학적 위험에 예방, 대비 및 대응 노력을 확대할 것

□ 감염병 예방, 임상 및 치료를 통한 여성의 경제 참여 강화: 심혈관 및 대사 질환 (호주)

○ 여성은 심혈관 및 대사 질환에서 과소 대표(underrepresented)되고 있음

○ 여성과 남성의 질병(심혈관질환 및 뇌졸중 등)에 따른 위험 요인이 상이함

○ 호주에서는 임상 시험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아 과소 대표되고 있으며,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음을 포함함.

- 첫째로, 초기 연구를 확장하여 보건의료 연구 분야의 포괄적 스펙트럼에서의 정책 개발의 촉진 요인 파악
- 둘째로, 성별 및 젠더의 맥락에서 정책 개발 추진
- 셋째로, 여성 및 젠더 연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의 경제적 비용 및 영향 조사

□ 감염병 예방, 임상 및 치료를 통한 여성의 경제 참여 강화: 정신 건강 (미국)

○ 여성의 정신 건강 상태의 다양한 측면, 특히 유병률, 영향, 식별 및 치료의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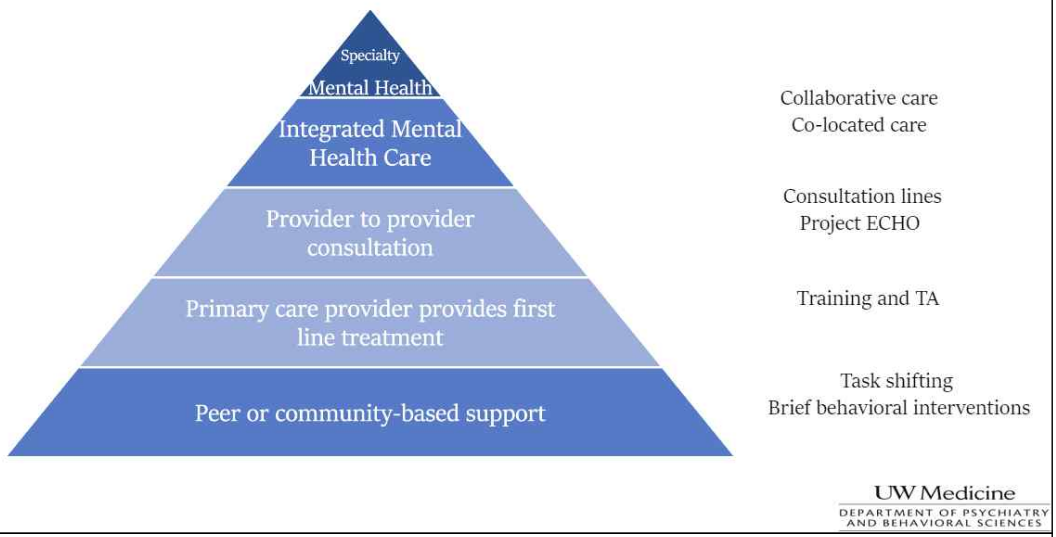
- 정신 건강 상태의 유병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으며,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음
- 여성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글로벌 부담이 증가(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침)
- 생산성과 경제적 성과에 정신 건강이 영향을 미침

- 산전(임신과 산후) 기간 동안 정신 건강 상태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임신부의 우울증과 불안은 아이와 임신부에게 악영향을 미쳐, 의료 비용의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주산기 동안 치료되지 않은 기분 및 불안장애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 저하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 여성 정신 건강 질환의 유병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고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여성 정신 건강의 확인 및 치료를 위해 선별 검사 횟수를 늘리고 정신 건강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그림1)하고 있으며, 치료의 수준은 다음과 같음

- 개별적(Individual) 수준: 가정 폭력, 성폭력, 성차별 등
- 대인관계(Interpersonal) 수준: 보건 시스템, 재생산 건강을 위한 정보 등
- 시스템적 및 구조적 수준: 인종 차별, 불균형적 기후변화의 영향, 경찰 폭력 등

〈그림 1〉 여성 정신건강 치료의 접근성 개선



○ 통합적인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일차 의료, 산전 돌봄, 임상 치료, IPV(Intimate Partner Violence, 친밀한 파트너 폭력) 개입 등을 지원하며, 구조적으로는 여성의 유급 육아휴직의 기간을 늘리고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빈곤 완화적 개입을 진행할 것으로 제언함

□ 감염병 예방, 임상 및 치료를 통한 여성의 경제 참여 강화: 암 (한국)

○ 한국의 사망률 1위 질환은 암으로, 흡연과 알코올 섭취량이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하여 이를 줄이고자 하는 캠페인 및 노력을 공유

- 암 환자 및 가족들은 암 치료비의 5%만 지불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 치료비 지원

○ HPV의 경우, 13세부터 17세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함

○ 국가 암 진단 프로그램 시행으로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및 유방암 등의 여성 암 조기 진단 및 치료를 가능케 함

□ 패널 토의

○ 국가별로 감염병 예방, 임상 및 치료를 통한 여성의 경제 참여 강화 정책 방안을 공유함

-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경우 한국의 백신 접종률 및 암 진단 검사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경험 공유를 요청

○ (미국)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리(SRHR)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미국은 현재 병원 및 돌봄 제공자들의 수가 줄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되면 "health refugee"들의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함

○ (게이츠 재단) 여성들이 자신의 웰빙을 우선시하고, 스스로 경제적 자산을 관리하며, 출산 시기/여부/횟수를 결정하고,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고자 함.

- 성평등 팀은 새롭고 다양한 영역(디지털 연계, 모자/신생아/아동 건강, 가족 계획, 성별 통합, 젠더 규범 학습, 여성의 건강 혁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에서 개념 및 아이디어를 확장하며 여성의 건강 증진과 경제 참여 강화에 힘씀
  - 예를 들어 피임기구로 반창고와 같은 작은 크기의 패치(micro-array patch)
- IEF(혁신적 평등 포럼, Innovation Equity Forum)은 다양한 관점 제공을 위한 다양한 수준 및 분야의 다학제적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용적인 여성 건강 R&D 및 여성 기회의 장 마련

○ (뉴질랜드) 형평성 보장, 서비스 선택권 제공, 의료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중시, 중점적인 보건 시스템, 서비스의 기획 및 전달의 5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현재 뉴질랜드는 보건 시스템의 개혁 진행코자 함. 이러한 개혁은 마오리족, 장애인, 농어촌 거주자 등의 다양한 인구집단을 위한 6가지 건강 전략 개발을 진행함

- 마오리족과 그 외 인구집단의 형평성, 여성의 건강 증진 전략(5년~10년 기간), 편견 해소를 위한 전략, 여성의 특정 건강 문제(성 및 재생산 건강, 폐경 등), 지원적 돌봄 및 정신 건강 등의 전략
  - 여성의 건강 증진 전략의 네 가지(여성의 수요를 맞추는 보건 시스템, 특정 여성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서비스 개선, 가족 및 미래세대를 위한 결과 향상, 여성의 건강한 노화 촉진)를 우선 사항으로 확인

○ (대만) 디지털 헬스의 혁신과 관련하여 고령 인구의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 증진, 정보공유 및 정교화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3.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 (세션 5)

□ Rural Collaborative (미국)

○ 미국의 시골 지역의 병원들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어려움, 특히 산부인과(obstetrics) 및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수가 줄음

○ "산부인과 가뭄(Maternity Deserts)"은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문제며, 병원 기반 산부인과 서비스 손실은 시골, 특히 거주자의 인구 비율에서 흑인 또는 토착민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 조기 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 워싱턴 주지사는 워싱턴의 주의 시골 지역에 병원을 재개원 하는 법안을 통과하여 임신부들의 부담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함

□ Hologic (여성 건강 중점 의료 기술 회사, 미국)

○ 주정부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여성의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검사가 중요함을 강조

○ Global Women's Health Index(글로벌 여성 건강지표, 2020)는 건강, 예방적 돌봄, 기본적 필요 사항,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의견, 개인 건강 및 정서적 필요 사항의 다섯 가지 부문을 측정함

○ 본 지표의 측정 결과는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

- 전 세계적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오직 12% 여성이 암 검진을 받았음을 공유

-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흑인, 히스패닉 여성을 백인 여성에 비해 자궁경부암 검진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공유

□ Organon (피임, 생식의학, 정신의학 중점의 제약 회사, 미국)

○ MSD라는 미국 제약 회사에서 여성 고유 건강 요구 충족에 특화하기 위해 자회사로 설립됨

○ 본사는 여성 건강 혁신을 가속하고, 노동에 투자하며, 종합적 여성 건강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일례로 자궁내막증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통한 여성 생식의학의 혁신을 도모함
-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건강에 특화된 건강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4.. 여성의 건강 및 공평한 접근을 위한 관리 모델 및 모범사례, 패널 토의

□ 보건 분야의 여성 입지 개선 (Global Health and Development)

○ (문제)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의 기여는 저평가되고 있으며, 여성의 소득은 남성에 비해 약 24% 적으며, 보건 부문의 개발 원조는 2013년 이후 정체되어 있어, 투자 격차가 약 1300억 달러에 달함

○ (해결방안 제안) 혼합 금융(blended finance)를 통해 여성 의료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권한을 제공하고, 공공 및 민간 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자원을 유치하여 사회 및 환경적 개발 프로젝트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

- 보건 분야의 혼합 금융 상품으로는 임팩트 채권, 투자, 성과 기반 계약 등이 존재함
- 혼합 금융은 여성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자원의 가용성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시설/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 역량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복리후생으로 동기부여 및 고용 유지율을 향상하며, 소외된 지역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전문적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

○ WEFT(Women's Economic Financing for Tomorrow, 내일의 여성을 위한 재정적 기금) Fund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여성을 위한 과학·기술·경제·보건 이니셔티브에 투자하여 투가 격차 및 건강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함

- 이는 WHO의 암 이니셔티브와 IAEA(국제 원자력 기구)의 우선 사항과도 연관됨

□ 대만의 V-check (Global Health and Development)

○ 여성의 건강 중 자궁내막증이라는 질병에 충족되지 않은 의료 요구 사항(unmet medical needs)들이 존재하며, 생식의학 연구를 위해서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을 표함

- TMU(Taiwan Medical University)와 V-check의 협업을 통해 건강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를 가능케 하여 환장 중심적이고 저렴한 여성 건강 증진 기구들을 제공하고자 함

□ 성평등 및 건강 (미국)

○ 워싱턴주는 사회적·보건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신부 건강에 있어서 다양한 개입의 기회가 있음을 확인함

○ 주정부 및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산후조리 및 산후 건강 돌봄 지원 제도와 법령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후조리 서비스(Maternity Support Services, MSS)와 둘라(doula[7]))지원 등의 정책 경험 공유

□ 국별 토론

○ (캐나다) 인구집단에 성별은 LGBTQI+(성소수자)들을 포함할 것을 제언함

○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둘라의 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함

○ (한국) 여성의 건강권과 경제활동을 위해 자녈 출산 및 양육 지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등을 강화 및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노력과 사례를 공유

○ (미국) 기후변화와 여성 건강의 연계 및 여성의 정신 건강(치매) 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함을 제언

○ (태국) HPV 예방접종을 늘리기 위한 노력과 자궁경부암 및 유방암 등의 여성 특화 암의 검진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공유

- 청소년들의 예방접종(HPV 등)을 늘리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함을 공유

□ 요약 (미국, NCI-국립암센터)

○ 여성의 건강지원 및 경제적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APEC 회원국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성과 경제 포럼, '건강한 여성, 건강한 경제' 이니셔티브 등의 APEC 로드맵에 맞춰 보건 실무그룹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할 것을 확인함

- 성별에 특화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여성 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춘 모범사례 및 지식공유 기반 공동 연구, 임상 시험 및 연구조사에 여성의 참여 확대,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환 관련 자금마련(blended financing 등)과 자원 확대, 지속적 협력, 그리고 국제적·지역적 협력 강화에 힘쓸 것을 논의함

- 이를 기반으로 APEC 국가들은 여성의 건강 연구를 발전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며, 더 건강한 사회와 포용적인 경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협력할 것을 표함

⑤	APEC 보건·경제 고위급회의(HLMHE)
일 시	8/6(일) 9:00-18:00 (※ 사전 대체신청으로 근무일로 인정받은 휴일근무)
장 소	시애틀 컨벤션 센터 (APEC 회의장)
참석자	APEC 회원국 및 초청 기관

1. 개회

□ 미국 연방 보건부 장관 (Xavier Becerra)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역내 보건 역량 강화와 미래의 팬데믹 예방·대응·대비(PPR)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역내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함. 23년도 APEC 회의는 미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상호연계적(Interconnected) 보건 시스템 회복탄력성, 혁신적(Innovation)으로 경제와 보건 분야를 아우르는 디지털화, 그리고 포용적(Inclusive)으로 여성 및 소외계층의 참여와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한 역내 협력을 강조

○ 원싱턴 주 보건장관 환영사 (Umair A.Shah)

- 워싱턴에서 첫 APEC 회의 진행 후 역내 협력 및 보건분야의 노력들의 결과를 확인하며 오늘까지의 성장과 미래에 이어질 정책 대화 및 역내 공동 협력에 기대를 표하며 본 회의에 참석한 것을 환영함

□ 미국의 APEC HWG 우선 사항 (Matt Murray)

○ (Interconnected) 첫째로, 아태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는 탄력적이고 상호 연계된 지역을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보건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역내에 새로운 연결성 구축 및 기존 유대 강화를 통한 상호열결성과 지속가능한 성

장의 중요성 강조

○ (Innovation) 둘째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보건 분야의 혁신적 아젠다(보건 안보, 디지털 헬스, 원격의료, 예방접종 프로그램, 정신 건강, 암 예방, 규제 조화 및 혁신 기술 등)에서의 협력 강조

○ (Inclusive) 셋째로, 모두의 공평한 경제 참여 및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포용성을 강조하며, 이는 공공과 민간 부문(시민사회, 기업, 자선 단체 등)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함.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역내의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강조

□ ABAC 발언 (Ted Chang)

○ (디지털 헬스) 디지털 혁신을 통해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증진 잠재력을 증진할 수 있으므로 보건 정보의 상호운용성, 보건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원격의료를 활용할 것을 제언함

○ (팬데믹 예방과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을 교훈 삼아 미래의 팬데믹 예방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 및 프레임워크 구축,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팬데믹 치료제 및 진단/검사 키트에 대한 상호운용적 규제를 구축할 것을 제언함

○ ABAC은 각국의 장관들에게 다음을 권고함

- 무역의 활성화, R&D 및 유통 전반에 걸친 회복탄력성을 보장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의료 제품에 대한 글로벌 규제 조화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가속화, 공급망의 디지털화를 촉진, 콜드체인 기능을 포함한 운송 연결성을 강화하여 필수 의료 물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 WHO 발언 (Tedros)

○ 공중보건 투자에 대한 재정 여력이 우려할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조율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다음의 세 가지 우선순위가 제안됨

- 보건 시스템의 재조정, 기후 위기 해결, 그리고 글로벌 비상 대비 강화

□ APEC HWG 개요 소개(태국 의장-Narong Aphikulvanich)

○ 3일간 진행된 보건 실무그룹 회의에서 디지털 헬스, 원헬스, 기후변화와 건강, '24년도 의장국인 페루의 보건 분야 우선순위, 젠더와 건강 형평성, 그리고 공동선언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을 보고함

2. 지속가능한 보건 재정

□ (미국) 디지털 헬스와 전자기록의 활용 및 공유를 통한 보건 시스템 혁신 및 백신 접종 등 지속가능한 보건 재정이 중요함을 강조

□ (World Bank) 코로나19의 보건 위기는 경제 위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공공의 보건 재정이 큰 타격을 받아 보건을 포함한 공공 투자 역량에 큰 편차를 초래함. 따라서, 보건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편적 건강 보장 및 돌봄의 질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차 의료 강화, 보건 관련 세금 증액, 보건 공공지출을 더욱 빈곤 예방적(pro-poor)으로 재정적 개혁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제안함

□ (미국) 미국의 경우 시골/도서·산간 지역의 병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는 국가적인 (연방 정부 차원의) 보건 시스템 강화에 어려움으로 이어짐. 또한 민간 부문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국가로,

의료 부분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양보다 가치를 강조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함

- (인도네시아) 미국과 유사하게 건강보험 관련 행동 계획과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지출을 민간부문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현재는 공공지출이 7~80%)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표함
- (일본) 의료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인구 감소 및 낙후지역에서의 지역적 의료 보존을 위해 원격의료를 활용코자 하며, 이때 인터넷 및 디지털화된 인프라 개선과 데이터베이스 건강 관리 이니셔티브로 개개인에서 맞춤형 의료를 실현코자 하여 이러한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재정적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칠레) 칠레의 일차 의료 지출의 80%는 비감염성질환(NCD)로, 지난 20년간 보건 시스템 개혁을 통해 NCD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차 의료의 혁신을 도모하고, 다학제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건강 보장 범위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일차 의료와 전문 의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둠
- (필리핀) 대통령명 아래 보건 시설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80여개의 도시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며, 인프라 개발 및 자원의 우선순위 지정은 근접 지역의 경계를 확인 후 진행될 것으로 발표함
- (존슨앤존슨) 민관협력이 중요하며, 일차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질병 예방 시스템에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디지털화를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탄소 배출 줄이기)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국별 토의
  - 회원국들(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캐나다, 태국)은 일차 의료 및 보편적 건강 보장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에 공감하였으며, 코로나19의 교훈을 디딤돌 삼아 보건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한국), 사회경제적 개발에 힘쓸 것(중국, 캐나다)을 표함.

3. RHSC, AHC, HeSAY 업데이트

- RHSC(규제 조화 운영위원회), AHC(APEC 규제 조화 센터), 그리고 HeSAY(보건과학 아카데미)는 기존의 운영 방식 대로 CTI(무역·투자 위원회) 산하의 LSIF(생명과학혁신포럼)에 속할 것이며, CTI가 감독기관으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발표함
  - (RHSC)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합의(convergence)의 부족은 사람들의 안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이용 가능성, 공공재 저장, 그리고 투자 유치 등의 문제를 야기함. 따라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 당국 간 규제 협력 촉진, 인적 역량 강화, 정책입안자 간 합의된 정치적 의지 고취
  - (AHC) AHC는 2009년도에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규제 개혁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화된 센터로 출범하였으며, 이는 규제 역량 강화, 국제 협력 증진, 그리고 격차를 파악하여 해소하기 위해 설립됨
  -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회원국들은 향후에도 기존에 진행해왔던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에 기대를 표하며 채택된 운영방식에 지지를 표함

4. 팬데믹 예방·대비·대응((PPR) 및 일차 의료(PHC)

- (국제 말라리아 조정관) 팬데믹 교훈으로 국가들은 팬데믹 대응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차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 공평한 접근성 보장, 그리고 질병 발생 시 역내 협력 및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국별 토의)

○ 회원국(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 등)들은 각국의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관련 정책적 경험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공유함

○ 또한, 회원국(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 등)들은 일차 의료의 중요성 및 통합적 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시스템 구축 및 강화와 팬데믹 예방 대응 시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표함

○ 더불어, 코로나19의 교훈을 기반으로 보건 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공평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감염병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을 표함 (한국, 인도네시아 등)

○ 추가로, 서방 국가들(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리(SRHR)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여 보건 시스템 강화에 힘쓸 것을 제언함

5. HLMHE 선언문 채택

□ 18개의 제안된 공동선언문 내용 중 우크라이나 사태 및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리(SRHR)에 대한 두 문단을 제외하고 16개의 문단에 대해 회원국들이 합의하였음을 표함

6. 폐회

□ 팬데믹 이후의 필수 보건의료 인력의 이동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하며, 다음 의장국인 페루의 보건분야 우선 사항에 대한 소개 및 페루로의 초청을 확인함

⑥	**현지 출국 및 귀국**
일 시	8/7(월)~8/8(화) 9:00-18:00
장 소	미국 시애틀 타고마공항 / 인천국제공항
o KE0042 13:00 - 16:40(+1) 시애틀→인천	

1)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2)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국)
3)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4) WHO, WOAH, FAO, UNEP 등 4개의 국제기구로 구성된 원헬스 접근법 강화를 위한 협력체로, G20 문서 참고
5) Vector-Borne Disease(VBDs), 모기나 진드기와 같은 매개에 의해 전염되는 기생충,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
6) Office of Climate Change and Health Equity
7) 출산, 유산, 낙태, 사산과 같은 중요한 건강 관련 경험뿐만 아니라 사망과 같은 비생산적 경험을 지원하는 훈련된 전문가

3 출장 증빙 회의 현장 사진, 면담자 명함 등

①	APEC 회의장 (시애틀, 미국)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